

민선 5기 기초長 공약이행·정보공개 광주 1위

남구·북구 최고등급... 전남은 하위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27개 지자체 분석 결과

민선 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광주지역이 전국 15개 권역 중 1위를 차지했다.

광주지역 자치구들은 특히 주민소통과 웹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남구와 북구는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기록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전국 2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 이행자료를 모니터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의 총점이 83.77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2년 연차별 목표 달성분야(100점) ▲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분야(100점)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별로 진행, 이를 총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A등급(5대 분야 합산 총점 평균 85점 이상)을 받은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는 광주 남구와 북구 2곳이었으며, 광주 서구와 전

남 담양은 A등급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진도와 신안군은 C등급을, 보성과 장흥은 최하위인 D등급이었다.

광주지역은 주민소통분야(89.80점)와 웹소통 분야(96.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들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남은 주민소통분야에서 53.00점을 얻어 강원지역(53.44점)·충남지역(56.45점)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광주 서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가 주민소통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전남에서는 나주시만이 주민소통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 완료도의 경우 광주지역

은 53.90%로, 대전(70.52%)·서울(55.17%)·경기(55.07%)에 이어 4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43.16%)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전남은 37.67%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8위를 차지했다. 자치단체별로는 광주 북구와 담양군이 SA등급을, 광주 서구와 전남 함평·장성이 A등급을 받아 우수 자치단체로 기록됐다.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에서는 광주지역이 92.72%로, 전국 15개 권역 중 8위로 중위권을 차지했으며, 전남은 91.39%로 11위에 그쳤다.

광주 남구와 전남 곡성군이 SA등급을 받았고, 목포와 여수, 담양·해남·완도·진도 등 전남 6개 자치단체가 A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모니터 결과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가 상반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실천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의 열의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광주 4개 기초 자치단체장(동구는 지난해 보궐선거로 제외)의 공약은 모두 154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정상 추진 공약은 39.61%(61개), 이행완료 공약은 53.90%(83개)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추진 또는 보류·폐기 공약은 모두 7개(4.55%)로 확인됐으며,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약도 11개(목표 미달률 7.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도당 혁신으로 민생정당 거듭나야”

장병완, 민주당에 쓴소리



지난 1년간 민주당통합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낸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22일 지역사회에 밀착하지 못하고 중앙당 위주로 운영되는 민주당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체 126명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민생정당으로서 거듭나려면 시·도당 역량강화가 시급하다”며 “시·도당 혁신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당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지방분권형 전국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 속으로 하방(下方)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중앙당 중심의 인력과 예산운용을 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 생활 현장으로 파고들려면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도당은 중앙당과 지역위원회의 가교역할, 지역위원회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시·도당의 현실은 예산도 일할 사람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장 의원은 실제로 “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정책역량 강화 사업과 지역경제 발굴을 위한 정치아카데미 개설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재정문제와 역량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되거나 실행하지 못했다”고 털어놴다.

그는 이어 “민주당 시·도당 가운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광주시당위원장에서조차 많은 현직 의원에게 부딪혔는데 당세가 약한 시·도당 사정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라도 시·도당의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쓰촨지진 사흘째

사망·실종 213명

쓰촨성 지진 발생이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구조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명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2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현재 사망 188명, 실종 25명 등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21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상자도 1만 1460명에 이른다.

사망·실종자는 지진 피해 중심지인 야안(雅安)시 루산(蘆山)현 120명, 바오싱(寶興)현 46명 등이다.

구조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지진 발생 후 72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중국 정부는 생선과 구출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루산현과 바오싱현 등지에서는 인민해방군 장병과 무장경찰 대원, 소방대원, 의료진을 주축으로 한 2만5000여명이 투입돼 생존자 수색 및 구조를 벌였다.

그러나 지진 발생 이후 산사태가 이어지면서 산간 피해 지역의 고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루산현과 바오싱현을 중심으로 31개 향(鄉·진·鎮)이 여전히 외부와 육상 교통이 끊긴 상태다.

한국으로 치면 현은 군, 향·진은 읍·면에 해당하는 곳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지역에 비가 예고되면서 대규모 산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중국 쓰촨(四川)성 강진으로 22일 현재 사망·실종자가 213명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야안(雅安)시 루산(蘆山)현 룽문(龍門) 마을지진 현장에서 군인들이 이차민들에게 나눠줄 식량 등 구호물품을 군용 헬기에서 내려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日 각료 야스쿠니 참배 반발 윤병세 외교장관 방일 취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일부를 방문해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려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우리 정부의 자체 요청에도 일본 각료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잇따라 참배한 것에 대한 조치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윤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일 새 정부가 큰 방향

무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번 방한은 우리측이 먼저 제의해 추진됐고, 일정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우리 정부는 수차례 일본 측에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과 같이 윤 장관의 방일 환경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일본 각료가 신사 참배를 강행하자 외교부는 방일 계획을 취소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했다.

특히 정부는 자민당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경제 무장까지 신사를 참배한 것을 심각한 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원칙과 신뢰

를 바탕으로 외교를 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함께 현 상황에서는 한일간에 실질적인 회담이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 부 고위당국자는 “아소 부총리는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왔고 차기 총리도 노리는 사람”이라며 “아소 부총리가 간 것은 굉장히 고약하다”고 비판했다.

아소 부총리 등 각료 3명은 20~21일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4월 21~23일)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들 각료가 개인 자격으로 참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운태 “朴대통령에 FINA 실사단 면담 요청”

강운태 광주시장은 국제수영연맹(FINA) 실사단이 2019세계수영대회 개최를 희망한 광주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마르쿠레스쿠 코넬 사무총장 등 국제수영연맹 실사단을 접견해줄 것을 청와대측에 요청했다”며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졌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실사단이 28일 광주를 방문하는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수영장이 건립되지 않아 맨땅(수영장 부지)과 조감도, 그리고 시민의 뜨거운 환영 취입식 특사로 왔고 차기 총리도 노리는 사람”이라며 “아소 부총리가 간 것은 굉장히 고약하다”고 비판했다.

아소 부총리 등 각료 3명은 20~21일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4월 21~23일)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들 각료가 개인 자격으로 참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상경하는 실사단이 박 대통령을 접견한다면 신뢰감 형성은 물론 광주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FINA위원 22명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유치가 가능한 만큼 실사를 잘 받아야 하고 남은 협상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29일부터 열리는) 동아시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을 환영하고 시민들이 대회를 참관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jkky@kwangju.co.kr

보금자리 특별법 발의 오병윤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광주 서구 을)은 22일 임대주택법상 부도 임대주택을 보급자리주택으로 매입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임대주택법상 부도 등의 상황에서 제외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충 가입을 신청하지 않는 임대주택까지 보급자리주택사업 시행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재지: 광산구 산정동
- 면적: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지목: 잡종지
- 입지조건: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 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95㎡(90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원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3㎡당 35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대로변 코너 소형 상가건물
주월동 상가 대지141㎡ 건물135㎡ 전용임대
입구 35m대로변 코너 주차면리 매2억4천만원 (카센터, 전시장 미용실등 다용도적합)

공장 창고 부지
나주시 송촌동 동신대 인근2차선도로 접 자연
녹지 전16,200㎡(4,900평) 매가 3.3㎡당 20만
원 (공지, 창고,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등 적합)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원룸 교환

두암동4층 원룸

대지 324㎡
건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용자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임대가능

1층,2층,3층,독채
시설완벽
시비없음

010-3701-4767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얼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순남사거리편)